

‘자기’와 ‘그’의 재귀적 용법에 관하여

홍 순 성

1.1. 한국어의 재귀대명사화(reflexivization)에 관한 생성문법적인 연구는 영어의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에 대한 변형규칙이 제시된¹⁾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어 왔다고 하겠다.²⁾

조용(anaphora)에 있어서 개체 자체로 지시가 되돌아 오는 이른 바 재귀대명사화의 현상은 형태적으로 자기 외에 ‘자신, 자기자신, 저, 당신, 자체, 서로, 스스로’ 등 여럿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 방면의 연구는 이들 가운데 주로 자기만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오다가 이익섭(1978)에 의해서 ‘저, 자기, 당신’의 세 형태의 대명사가 함께 논급되었으며, 이후 김일웅(1980) 성광수(1981, 1984)등에 의해서 자신을 포함시킨 다른 형태의 재귀대명사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었다. 이들의 연구 업적은 실로 괄목할 만하나 아직도 미진한 데가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어 재귀대명사(화)에 관한 연구가 주로 자기에 국한하여 그 선행사와의 조응관계에 관한 것을 다루었으며 재귀적 용법에 있어서 자기와 그를 대비시킨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도 부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되어 왔고 연구되어 온 자기에 대해, 자기를 과연 재귀대명사라고 해도 좋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자기와 그를 대비시켜 이들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재귀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1.2. 언어의 보편성 가운데 한 특성으로 조응표현을 들 수 있다. 조응표

1) R. B. Lees and E. S. Klima, "Rules for English Pronominalization" Language 39 (1963) pp.17~28.

2) 한국어 재귀대명사를 생성문법적 입장에서 다룬 것으로는 Oh, Choon-Kyu (1971), Yang, D.W (1973), 남기섭(1973), Lee, Chung-Min (1974), 성광수 (1975, 1981, 1984), Kim, Wha-Chun(1976), Lee, Hong-Bae(1976, 1979), Lee, I.H(1978), 이익섭(1978), 김일웅(1980), 홍순성(1981), 장석진(1985) 등이 있다.

현이란 하나의 문장이나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어떤 표현요소가 되풀이될 때 어떤 것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표현요소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되어 쓰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대체된 언어표현을 조응어(anaphora)라 하고 조응어가 지시하고 있는 표현요소를 선행사(antecedent)라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응표현 현상은 언어적 문맥이나 담화의 세계에서 되풀이되어 쓰인 요소를 다른 말로 바꾸거나 또는 생략함으로써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단조로움을 피하고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위해 표현을 간결하게 하여 전달하려는 표현행위이다.

(1) a. *영호_i는 영호_i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³⁾

b. 영호_i는 {자신_i, 자기_i}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

c. 영호_i는 그_{i,j}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

d. 영호_i는 ϕ _i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

(1b~d)의 ‘자신, 자기, 그, ϕ ’ 등은 영호를 선행사로 하는 조응어로서 (1a)의 실증구조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보겠는데 (1a)가 경우에 따라서는 (1b~d)와 같이 여러 형태로 대체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a)가 비문인 것은 이 경우 규칙으로서의 대명사화가 주의적이 아니고 의무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때 (1b)처럼 이른 바 재귀대명사로 대체되기도 하고 (1c)처럼 일반 대명사로 대체되기도 한다. (1d)는 대명사화된 것이 다시 삭제된 경우이다. 대명사화할 경우 (1b)와 같이 자신 또는 자기로 대체되면 재귀대명사화라 하고 (1c)와 같이 그로 대체되면 대명사화, (1d)와 같이 생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ϕ 의 경우 무형대명사화라 일컬어 왔다. 한국어의 조응 현상에서 조응어의 종류는 대체되는 조응어의 형태에 따라서 대명사 또는 재귀대명사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재귀대명사화에 관한 것이다.

(1b~d)에서 NP_a는 다같이 영호임에 반하여 (1b~d)의 NP_b⁴⁾는 ‘자신/자기, 그, ϕ ’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 형태적 면에 치중하여 (1b)는 재귀대명사화, (1c)는 대명사화, (1d)는 무형대명사화(또는 생략)라

3) i와 i는 동일지시적(coreferential)임을 나타내고 i와 j는 비동일지시적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4) 조응표현에 있어서 선행부(antecedent)를 NP_a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이와 상호 지시적인 후행 명사구 곧 (재귀) 대명사는 NP_b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

고 하는 것은 그 통사적 특성이 동일하다⁵⁾는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재귀적 용법면에서의 통사적 특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NP₆가 **자신** 또는 **자기**로 나타나면 재귀대명사이고 NP₆가 **그**로 나타나면 (일반)대명사라고 일컬어져 온 사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1. 먼저 **자기**라고 하는 이른바 재귀대명사와 **그**라고 하는 (일반인칭)대명사가 조응표현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특별한 용법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자기**와 **그**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2) a. 영호_i는 준호_j를 자기_{i,j}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b. 영호_i는 준호_j를 그_{i,j/k}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2a)에서 **자기**는 영호 또는 준호를 가리킬 수 있으며 (2b)의 **그**는 (2a)와 마찬가지로 영호 또는 준호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제 3자(k)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차이점 외에는 **자기**와 **그**의 통사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또는 **자신**)는 문장의 어떠한 구조에서나 항상 재귀대명사이며 **그** 또한 어떠한 구조에서나 대명사(인칭)로만 일컬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재귀대명사 **자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재귀성과 대치성이 그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1b)와 (1e)의 대비에서, 그리고 (2a)와 (2b)의 대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응표현에 있어서 개체 자체로 지시가 되돌아 오는 재귀성은 (2a)와 (2b)가 마찬가지로이며 영호 또는 준호를 **자기**로 대치하는 것이나 **그**로 대치한다는 점에서 대치성 또한 (2a)와 (2b)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남한테 시키지 말고 **자기**가 한번 해 봐요.
b. **자기** 나 좋아해?
(4) a.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고 거룩하다.
b.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 불명하고 비하시켜 스스로를 모멸하는 행위이다.
c. 승부의 세계는 설 틈이 없습니다. **자신(자기)**의 미래는 지혜로운 체력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d. **자기를** 등불로 하고 **자기를**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남의 것을 의지할 곳

5) 조응표현에 있어서 개체(NP_a) 자체로 지시가 되돌아 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1d~d)가 모두 통사적 특성을 같이하고 있다.

으로 삼지 말라.

- (5) a. 나도 **제**(내) 잘못은 압니다.
 b. 나는 **자**신을 원망했다.
 (6) a. 골두기도 **제** 새끼는 귀엽다 한다.
 b. 옛날엔 전보가 **제** 구실을 못했었지.
 c. 물건이 이래서야 어디 **제** 값을 받겠나?
 d. 엔진이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3ab)는 갓 결혼한 부부이거나 애인 사이에서 주로 여자쪽에서 하는 말로 여가서의 자기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3인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2인칭을 바로 지시하는 2인칭대명사로서의 쓰임이다. 2인칭대명사로서의 자기는 요즈음 사랑하는 젊은이들—적어도 마음을 준 그런 사이들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다.

(4a~d)에서의 자기는 독자나 기타 일반적으로 듣는이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대명사로서 부정대명사로서의 3인칭 대명사라 하겠다. 최근에 와서 자기의 쓰임을 빈도수로 볼 때, 조용표현에 있어서 재귀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보다 위의 (3)~(4a~d)와 같이 2인칭 또는 3인칭(부정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다.

자기는 또한 (5)에서와 같이 1인칭을 가리키기도 한다. 2인칭이나 3인칭(또는 부정칭)보다는 그 쓰임이 훨씬 드물지만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 (5a~b)처럼 자기가 1인칭 대명사를 지칭할 경우는 자기보다는 자신 또는 제가 자연스럽다.

자기와 이형태인 제는 (6a~d)에서와 같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유정물, 그리고 무정물까지도 가리키고 있다.

이상 (3~6)에서 본 것처럼 자기는 3인칭 뿐만 아니라 1, 2인칭과 부정칭, 무정물까지도 두루 가리킬 수 있는 통칭대명사인 것이다. (3)과 (4a~d)에서의 자기는 재귀화의 특성인 재귀성과 대치성을 찾을 수 없으며 재귀적 용법이 아닌 때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조상에서라도 자기가 나타나면 곧 재귀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자기에 대한 연구가 (3)~(5)에 나타나는 용례보다는 (1)~(2)에 나타나는 재귀적 용법으로서의 자기에 국한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귀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즉, 재귀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해서 재귀대명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똑 같은 조건에 있는 (1c)

와 (2b)의 **그도** 재귀대명사라고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c)와 (2b)에서 재귀적으로 쓰인 **그를** 재귀대명사라고 하지 않듯이 (1b)와 (2a)를 비롯한 (3)~(6)에서 쓰인 **자기도** 재귀대명사가 아닌 통칭대명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자기와 그와의 대비는 앞의 2.1에 보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와 그가 어떠한 조건에서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조건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⁵⁾

- (7) 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3인칭이어야 한다.
 - 나) a.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주어이어야 한다.
 - b.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주어가 아니어도 좋다.
 - 다) a.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b.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유정명사이어야 한다.
 - 라)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그에 앞서고 또 그것을 지휘(Command)해야 한다.

(7)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조건으로 첫째, 인칭성, 둘째, 주어성, 셋째, 유정성 [+animate], 넷째, 지휘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8) $NP_a - X - NP_b - Y$

1 2 3 4 $\Rightarrow$

1 2. 자기 4.

조건 1. 1=3

2. 1은 3인칭, 주어

3. 1은 3에 앞서고 그것을 지휘해야 한다.

(8)의 조건 1에서 NP_a 와 NP_b 가 동일지시적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조건 2를 놓고 볼 때, 먼저 선행사(NP_a)가 3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에 국한되는 경유이고 자신은 (9~10)에서 보는 것처럼 1, 2인칭을 다 받을 수 있다.

6) 줄고(1981), p.5 참조.

(9) a. 나는 자신을 믿는다.

b. *나는 자기를 믿는다.

(10)a. 너는 자신을 알아라.

b. *너는 자기를 알아라.

(9~10)에서처럼 선행사(NP_a)가 1, 2인칭일 경우에는 자기보다는 자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귀대명사의 특성을 논할 때 대표적인 형태라고 일컬어지는 자기만을 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이들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자기의 선행사 조건은 그의 선행사 조건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따라서 (8)의 조건 1, 2의 두 사항만으로는 역시 자기와 그의 용법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선행사가 주어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기와 그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자기의 선행사가 주어이어야만 하느냐 혹은 주어가 아니라도 좋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론의 여지가 많다. 선행사의 주어 조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홍순성(1981)에서 거론한 적이 있으므로⁷⁾ 여기서는 자기의 선행사가 반드시 주어이어야만 한다는 논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약하기로 한다.

(11)a. 준호_i는 영호_j에 대하여 그_{i/j/k}의 결점을 들추었다.

b. 준호_i는 영호_j에 대하여 자기_i의 결점을 들추었다.

c. *준호_i는 영호_j에 대하여 자기_j의 결점을 들추었다.

(12)a. 준호_i는 영호_j와 그_{i/j/k}의 집에 갔다.

b. 준호_j는 영호_j와 자기_i의 집에 갔다.

c. *준호_i는 영호_j와 자기_j의 집에 갔다.

(11~1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선행사는 주어라야만 되지만 그의 선행사는 주어가 아닌 성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와 그의 차이는 선행사 조건에서 주어성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행사 조건이 (8)의 조건 3도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3)a. 준호_i는 대학을 나왔지만, 아직 준호_i는 취직을 못했다.

b. 준호_i는 대학을 나왔지만, 아직 그_i는 취직을 못했다.

c. *준호_i는 대학을 나왔지만, 아직 자기_i는 취직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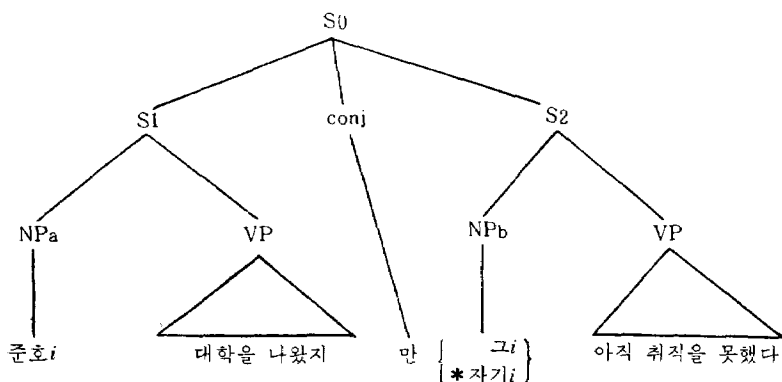
7) 줄고(1981), pp.5~7 참조.

(14)a. 준호_i는 자기_i를 원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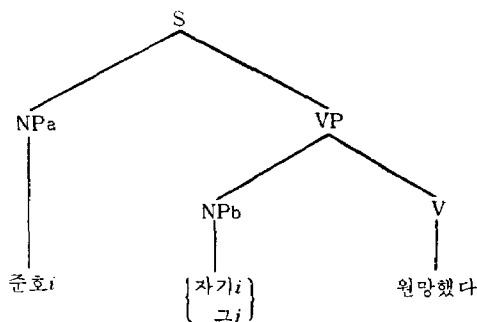
b. 준호_i는 그_j를 원망했다.

(13a)는 (8)의 선행사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나 (13c)에서 자기는 선행사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비문이 되어 있다. 곧 (13c)에서 재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수형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호가 자

(13)㉠



(14)㉠



기를 지휘(command)하지⁸⁾ 않는다는 데에 있다. ((13)①은 (13)의 수형도입) 반면에 (14)를 수형도로 나타낸 (14)⑦에서는 NP_i 와 NP_j 가 서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재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가 선행사와의 계속조건으로 반드시 지휘관계에 있어야 하는 반면에 그는 선행사와의 지휘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한다.

(15)a. *준호_i가 마당을 쓸고 난 후, 자기_i가 물을 떠 왔다.

b. 준호_i가 마당을 쓸고 난 후, {그_i}가 물을 떠 왔다.

(15a)가 비문인 것은 (15a)의 선행사(준호)가 자기를 지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15b)가 정문인 것은 그가 자기와는 달리 선행사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와 그의 차이를 지휘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겠으나 이것으로도 재귀화에 연관된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6)a. 한 사나이가 일어나 서서히 다가 오더니, 자기_i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b. 한 사나이가 일어나 서서히 다가오더니, 그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17)a. 그 친구들이 나에게 막 호령이더군. 내가 뭐 자기들 종인가?

b. 그 친구들이 나에게 막 호령이더군. 내가 뭐 그들 종인가?

(16a)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달리 선행사와 자기_i가 지휘관계에 없는 데도 재귀화가 일어났으며 (17a)에서는 NP_i 와 NP_j 가 두 문장에 분리되어 있어서 지휘관계라는 표현을 아예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16ab)와 (17ab)에서는 자기와 그의 용법의 차이를 지휘관계로써 설명을 할 수 없는 반면 (15ab)의 경우는 지휘관계로써만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둘의 모순을 현단계로서는 규칙화하기 힘들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그와는 달리 자기에게는 지휘관계가 강력한 영향을 미

8) 지휘(command) 또는 성분지휘(c-command)에 관해서는 Langacker (1969), Reinhart(1976) 참조.

“교점 A는 만약 교점 A와 B가 상호 지배하지 않고 A를 지배하는 최초의 분지교점이 B도 지배할 때 교점 B를 성분지휘한다.”(Node A C-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dominates B) (Reinhart 1976, p.32)

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규칙화하려면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조건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문법의 한 원리로서 설정·제시한 Chomsky의 결속이론(Binding Theory)의 3가지 조건⁹⁾ 가운데 (A)에 해당하는 자기와 (B)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한국어에서는 (A)의 이론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자기가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자기를 재귀대명사로 독립시켜 내세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3.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와 그의 대비를 단순문과 복합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다음과 같은 단순문을 보자.

(18)a. 준호_i는 칼로 자기_i를 찔렀다.

b. *준호_i는 칼로 그_j를 찔렀다.

(19)a. 준호_i는 자기_i를 추천하였다.

b. *준호_i는 그_j를 추천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본다면 (18b)와 (19b)에서도 그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놓이는 자리에는 거의 항상 그가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b)와 (19b)에서도 그가 가능하려면 그는 준호가 아닌 제 3의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18~19)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기 자리에 놓일 수 없다. 말하자면 (18~19)는 단순문이며 따라서 한국어 대명사화는 단순문에서는 자기만이 가능하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다음 (20)과 같은 예문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20)a. 준호_i는 영호_j를 자기_i의 집에서 만났다.

b. 준호_i는 영호_j를 그_j의 집에서 만났다.

(20ab) 또한 단순문이지만 자기가 쓰이는 자리에 그도 쓰이고 있다. (18~19)와 (20)은 다 같이 단순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자기와 그의

9)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Chomsky 1981, p.188)

“(A) 조용어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된다(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 대명사류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롭다(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C) 지시적 표현은 어디서나 자유롭다(An R-expression is free)”

쓰임이 동일하지 않다. 이들 문장을 비교해 보면 (18~19)는 NP_i의 선행사로 생각되는 NP_a가 단 하나 뿐인데 반하여, (20)은 그것이 두 개(준호 & 영호)가 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명사화에 관한 규칙으로 단 순문에서 선행사로 생각되는 NP_a가 단지 하나 뿐이면 NP_i는 자기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다음은 복합문 차례인데 편의상 복합문을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분리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자기와 그의 쓰임이 내포문과 접속문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 (21)a. 준호_i는 자기_i가 순이와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 b. 준호_i는 그_{i/j}가 순이와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 (22)a. 준호_i는 어제 자기_i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b. 준호_i는 어제 그_{i/j}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23)a. 준호_i는 영호_j를 자기_i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
- b. 준호_i는 영호_j를 그_{i/j}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

(21)은 명사절을 내포한 복합문이며, (22)는 완형보문의 경우이고 (23)은 관형절을 내포한 복합문이다. (21~23)에서 보듯이 내포문의 경우, 자기와 그의 쓰임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자기의 자리엔 모두 그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 (24)a. 준호_i는 자기_i의 아버지가 사장이므로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 b. 준호_i는 그_i의 아버지가 사장이므로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 (25)a.*준호_i는 의사이고 자기_i의 아내는 교수이다.
- b. 준호_i는 의사이고 그_i의 아내는 교수이다.

(24)는 종속접속문이고 (25)는 대등접속문이다. 종속접속문에서는 자기와 그의 쓰임이 일치되고 있으나 대등접속문에서는 (25a)와 같이 자기_i가 불가하다. 이는 종속접속문과 대등접속문이 통사상으로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귀적 용법에서의 자기의 쓰임이 그의 쓰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재귀적으로 쓰이는 그를 재귀대명사라고 하지 않듯이 자기_i도 재귀대명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자기가 모든 인칭에 두루 쓰인다는 점에서 통칭대명사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2.1에서 주장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 2.2에서는 자기의 선행사 조건에 대하여 그와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행사 조건 가운데 주어성 여부에서 자기와 그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지휘관계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었으나 규칙화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차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재귀적용법으로서의 자기와 그는 통사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주장했으나 2.3에서 단순문과 대등접속문 등에서는 자기와 그의 명확한 차이점도 있음을 밝혔다.

이 모든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통사론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리써 자기와 그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통사적 조건은 물론 당연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에 대한 보완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 김일웅, 1980. “대명사화 변형과 재귀대명사화 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7,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남기심, 1973. 국어완형보문법연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성광수, 1975. “국어대명사에 대하여” 어문논집 16, 고려대.
- , 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 한글 172.
- , 1984. “통칭대명사의 결속관계” 특권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이익설, 1978. “한국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2, 서울대학교.
- 이흥배, 1979. “국어의 변형 생성문법(Ⅲ)” 문법연구 제 4 집, 탑출판사.
- 장석진,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홍순성, 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한국어문논집 제 1 집, 한사대학 한국어문연구소.
- Chang Sun, 1977. “Korean Reflexive Pronoun Caki and Its Referent NP's Point of View.” 語學研究, 1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Amsterdam: Foris Publications.
- Kim, Wha-Chun Mary, 1976. “The Theory of Anaphora in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Langacker, Ronald W.,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 Command." In *modern Studies in English*. Ed., D. Reibel & S.A. Schane, New Jersey: Prentice-Hall.
- Lee, Chung-Min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an Korea Book Corporation.
- Lee, H.B. 1976, "Notes on Pronouns, Reflexives and Pronominalization" *Languag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2—2.
- Lee, I.H. 1978, "Pronominal Anaphora" *Languag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4—1.
- Lees R.B. Klima E.S. 1963, "Rules for English Pronominalization" *Language* 39.
- Oh, Choon-Kyu 1971, *Aspect of Korean Syntax*.
- Reinhart, Tanya,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iss. Univ. of MIT*.
- Yang, D.W. 1978, "Toward a Functionary Theory of Anaphora." *Languag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4—2.